

2019-09-29 일 지공여행 16차 김포 양천 경전철

남성역에서 갑오징어와 막걸리를 먹고 마시며 에너지를 충전한 뒤

고터로 가서 9호선 급행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김포공항이 이렇게 넓은줄 몰랐네. 국제선 4층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서 국내선으로 갔지요.

비행기 타고 떠나진 못하지만 마음을 신어 보내고 언젠가 떠나리라 생각하였다.

한참을 걸어 국내선에 도착하여 둘러보고 전망대를 갔더니 야외 담배 피우는 곳 같다.

인천공항과 크게 대비된다. 식당가를 둘러보니 출국 게이트가 보인다. 본인은 모르나 누군가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구나.

예전 일본 미국 대만갈 때 분명 김포공항을 이용했는데 처음 보는 것이 많구나.

오랫만에 김포공항을 둘러보며 옛날을 회상하고 다시 양촌행 경전철을 타고 구래에 내려 호수를 구경하며 쉬고 있다.

여기저기 아 파트 단지엔 아니 신도시엔 호수를 만들었구나.

한가롭고 운치가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시장이나 학교 큰병원이 없어 살기에 불편할 것 같구나.

신동탄에 GTX가 들어온다해서 4년전 입주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버스는 20-30분 간격이라 걸어서 동탄역으로 출근한다는 사람 일산에선 선릉으로 출근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또 왕숙 신도시 등을 지으면 교통대란이 될 것이라 반대하는 주민들

정책이란 참 어렵구나.

우리도 집을 고를때 신중해야 되겠구나.

낮술이 껄뚝말뚝하며 졸린다. 어서 집으로 가야겠다.

지금이 16:00

18:00나 되어야 집도착 할 듯.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지나는구나.

내 인생에서 하루가 사라졌다.

